

주일가정예배

2022년 2월 27일 주일예배

인도: 가족 대표

기 원 인도자

여호와께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24-26)

평강의 왕이요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명에 순종하고 이웃들과 화목하며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마음의 문도 열어 주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채우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는 영혼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295장 다같이

1.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2. 옛날에 유대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3.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후렴)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에베소서 2장 8절 인도자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설 교 『오직 은혜』 인도자

기 도 설교자

찬 송 290장 다같이

1.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2.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3. 무거운 짐 지도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후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광 고 】

1.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헌금안내

※중앙교회 공식계좌로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중앙교회 공식계좌: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오직 은혜

에베소서 2:8

설교학자 앤드류 블랙우드는 스펔전을 사도 바울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로 지목했다. 미국 설교 잡지 『프리칭』은 지난 1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 1위로 스펔전을 꼽는다. 스펔전은 오른손에는 성경, 왼손에는 청교도의 경건서적을 들고 다니며 읽고 묵상했다고 한다. 오늘 설교는 『은혜』라는 책에 수록된 것이다. ▶우리는 공로의 원리(세상)에서 은혜의 원리(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잃은 자이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라. 목자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다. 여인은 잃은 동전을 찾는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기다린다. 지금 당신은 무가치하고, 잃어버린 자이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가? 바로 당신이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God’은 선함 ‘Good’의 축약형이다.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다.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때이다. ‘은혜’는 구원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끝이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엡2:5).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은혜가 사용하는 수단이다. 믿음에 치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라. 믿음은 수로나 배관 역할을 한다. 은혜는 샘물과 같은 수원지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의 물결이 흘러가서 목마른 영혼들의 목을 축이는 수도관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하는 매개체다. 믿음은 붙잡는 손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손이다. 믿음은 밧줄을 붙드는 손이다. 믿음은 행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다. 믿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인간’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적이라면, 인간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의 회개보다 용서가 먼저다. 용서 받은 자가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확신한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내 회개보다 더 크고 더 먼저다. 하나님은 은혜와 용서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다. ▶언약에는 ‘행위 언약’도 있고 ‘은혜 언약’도 있다. 행위 언약은 인간의 행동을 기반으로 한 언약이다. 행위 언약의 결과는 아담의 범죄와 타락이었다. 은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것으로 행위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은혜 언약은 우리의 행위를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다. 은혜 언약으로 시작했다가 행위 언약으로 돌아가면 옛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구원의 여정이 만만한 것이 아니며 탄탄대로도 아니다. 많은 연단과 시험과 환난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또 다른 은혜와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하다. ▶은혜가 우리의 선행이나 행위나 공적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해도 값싸게 받아서는 안 되고, 가치 있는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한 삶을 사는 값을 지불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을 공적인 영역에서 증명해야 한다. ▶스펠전은 “만일 내가 일천 번의 생을 살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천 번의 생을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에 보답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58세에 사망하면서 겸손히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억하시오. 그저 평범함 돌판에 C.H.S. 라고만 쓰시오. 다른 것은 필요 없으니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주시오.” 스펔전이 위대한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과 그의 은혜 덕분이었음을 자기 자신이 더 잘 알았기 때문이다.